

# 지역민과 10년간의 동행... 호남레넌트오케스트라

###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개최... 16일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 전남노회 산하 8개 교회·호남 차세대 연주자들의 앙상블

창작 기반이 열약한 지역에서 10년간 오케스트라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2016년부터 정기연주회, 소공연을 펼치며 지역 청소년 예술가가 설 자리를 마련해 온 '호남레넌트오케스트라'가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호남레넌트오케스트라(단장 탁희현)가 연주회 '함께 걷는 길 동행'을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 진행한다.

팀명 레넌트(Remnant-남겨진 자)는 현대적 맥락에서 '다음 세대'를 지칭한다. 오케스트라에 관심 있는 전남노회 산하 8개 교회 연합과 호남에 기반을 둔 차세대 연주자가 모여 '자신들의 앙상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팀명에 담았다.

탁희현 단장은 "지난 10년간 뜻 있는 광주, 전남 청소년들이 '호남레넌트오케스트라'에 모여 지역 연주단의 명맥을 이어왔다"며 "지역민들 후원을 통해 단체를 유지하고 정기연주회도 개최할 수 있어 '광주, 전남'의 청소년들과 공생하는 측면이 컸다"고 했다.

이어 "팬데믹 시기에는 3년 동안 정기연주회를 멈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매월 2~3회 작은 연주회를 펼치는 등 꾸준한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팀을 운영해 왔다"고 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작년 2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였던 연주회 '영원한 작품'은 만석을 기록했다. 기세를 이어 이번에는 '동행'을 주제로 창단 2~30주년 너머를 바라보는 무대를 준비한 것.

공연은 누구나 알고 즐길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구성됐다.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를 시작으로 '아리랑 연주곡' 등이 올려 퍼진다.

김예은이 지준혁과 함께 부르는 '오페라의 유령', 백성영과 듀엣으로 들려주는 '아버지'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 지역 교회별로 '주가 일하시네', '우릴 사랑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등 하모니를 선사한다.

연주곡 'Hooked on Classics'는 클래식 음악에 드럼 비트를 가미한 퓨전 음악이다. 파르티토 차이콥스키, 모차르트, 거슈윈, 바흐, 로시니 등의 작품이 포함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이름을 알렸다. 끝으로 1991년 신해철이 발표한 '그대에게'를 합창 형식으로 부르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피아노(양세환) 제1바이올린(김유빈, 임재원) 제2바이올린(송은호, 전하리) 등이 연주한다. 비올라는(이건욱) 플루트(오승원, 김예빈) 클라(신은총) 호른(박조현) 트럼펫(나승찬), 트럼본(김태호) 등이 출연하며 베이스(김민주, 서재원), 첼로(이세연, 박하선), 타악기(김찬영, 박주안)로 구성된 선율도 들을 수 있다.

지휘를 맡은 권새롬은 모스크바 그네신 음악학교와 모스크바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지휘과정 수료했다. 현재 전남대, 광주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호남레넌트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



창단 10주년을 맞은 호남레넌트오케스트라가 기념 연주회 '함께 걷는 길 동행'을 오는 16일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 펼친다. 작년 2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쳤던 정기연주회 장면. <호남레넌트오케스트라 제공>

휘자, 목포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있다. 이외에도 평창 대관령 국제음악제,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전남 객원수석 및 단원을 역임했다.

홍보를 맡고 있는 이우행 담당은 "이번 기념 연주회는 레넌트가 걸어온 지난 10년을 음악으로 돌아보고, 향후 오케스트라의 방향성까지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26명으로 창단했던 작은 오

케스트라가 어느덧 50여 명 이상으로 커진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기획으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회화·도예의 푸른 빛... '치유의 숨' 깃들다

### 강운·박선희 작가 '푸른 숨' 전 24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위태로운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흔히 '숨이 멎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한다. 오늘날의 사국이 그러하다. 계엄사태로 촉발된 사회 불안과 끝이 없는 불황의 타널은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숨 한번 크게 쉬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 같다. 오늘날처럼 '숨'의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오는 적은 없다.

회화와 도예가 발하는 서로 다른 푸름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 회화 작가와 제주 도예 작가의 만남으로 펼쳐져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강운 화가와 박선희 도예가. 오는 24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푸른 숨'을 주제로 관객들을 만난다.

장르의 차이는 있지만 두 작가 모두 '치유'의 의미가 깃든 푸름을 모티브로 구현했다. 활동하는 공간은 다르지만 지역의 기억과 흔적, 역사를 푸른색에 투영해 깊고 다양한 서사를 가능하게 한다.

'구름 화가'로 알려진 강운 화가는 이번에도 하늘과 바다 이미지를 관람객들에게 '푸른 숨'을 쉬게 한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드리워진 구름은 이색적이다. '구름-증언'이라는 제목처럼 구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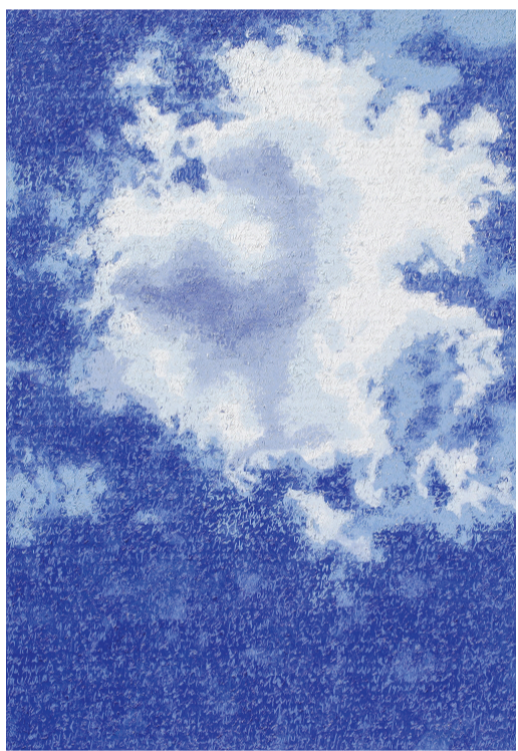


박선희 작 '구름 속에 그릇'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파란 하늘에 대한 현사가 아닐지 싶다. 구름이 있어야 하늘이 존재하고, 하늘이 있어야 구름은 의미를 얻는다. 작품은 우거진 파란 숲 사이로 드리워진 목화솜 같은 이미지를 발한다.

박선희 작가의 '가까운 바다 운술', '구름 속에 그릇' 등도 여유와 이완함을 준다. 푸른색이 주는 은전이다. 제주의 푸른 물결과 바람을 머금은 작품은 서정적인 감성을 발한다. 작품의 형태와 색조는 관람객들을 제주의 자연 앞으로 이끈다.

백지홍 큐레이터는 "회화랑 도예가 다르게 광주와 제주라는 공간은 다르지만 두 작가는 각각 지역



강운 작 '구름-증언'

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구현했다"며 "치유와 평안의 의미를 담은 파란색을 매개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박선희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역 극장가 수놓았던 독립영화 무료 상영

### 인디그라운드, 26일까지 90편 온라인 기획전

영화진흥위원회와 인디그라운드는 독립영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독립영화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곳에 아카이브 된 작품은 1년간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인디그라운드가 '2024 인디그라운드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스페셜 워크 기획전을 펼친다. 광주 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 등에서 선보였던 독립·예술영화 총 90편을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상영한다.

작품들은 1차(7-16일), 2차(17-26일)로 나눠 각각 45편씩 선보일 예정이다. 1차 라인업에는 김보람 다큐멘터리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을 비롯해 장민경 '세월: 라이프 고즈 온', 선호빈·나바루 감독의 '수카바타: 극락 축구단' 등이 포함된다.

극영화 '럭키, 아파트', '절해고도', '스투키스 투기', '영망이 흐른다'와 '작별', '백자와 우롱차'도 한 해 주목받았던 작품들이다. 이외 서세롬의 애니메이션 '스위밍', 알리 티나베코보 등이 연출한 실험영화 '트랙-잉' 등이 포함된다.

2차 목록에는 방적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들을 조명해 이원식 작 '조선인 여공의 노래'가 이



'조선인 여공의 노래'

름을 올렸다.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으로 돈을 벌러 떠났던 소녀들의 삶을 다룬 작품.

또한 학교폭력을 조종화한 임오정 '지옥만세'나 김경만 '돌들이 말할 때까지', 이강희 '모든 가족은 쿼어하다' 등도 저마다 의미를 더하는 영화들이다. (1, 2차 각각 장편 11편과 단편 34편 공개)

인디그라운드 측은 선정의 변을 통해 "올해 라이브러리에 역대 최대 작품이 접수된 만큼, 현시대의 다양한 이슈와 대상을 탐구할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치열하게 준비했다"며 "섬세하고 예민하게... 투박하고 우직하게 완성한 '빛나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무료 상영. /최류빈 기자 rubi@

## '팔방미인 레지던시 프로젝트' 참여 작가 모집

### 총장22 문화사업단 23일까지

'2025 팔방미인 레지던시 프로젝트' 참여작가를 모집한다.

총장22 문화사업단은 창의적 레지던시 프로그램 일환으로 참여 예술가를 공모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총장로 일대 유류 공간을 활용, 실험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역민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 예술 프로젝트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영상을 비롯해 문학, 시각, 공연, 다원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국내 예술가로 한정한다. 또한 국내외 다른 레지던시 일정과 겹치는 경우는 지원이 어렵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거주하며 예술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한편 윤진화 총장22 단장(미술학박사)은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과 예술의 공공성 및 가치 등을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브람스, 슈만·클라라를 만나다... 오페라에서

### ACC 수요극장 19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박수를 받는 요하네스 브람스.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 누군가 그에게 연인 클라라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 모든 일정을 뒤로한 채 장례식장으로 향한 브람스는 침통한 마음에 휩싸인다.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브람스는 친구 요하임 소개로 스승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를 만나고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과연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수요극장 '브람스'를 오는 19일 오후 7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선보인다. 우수 공연 작품을 영상으로 만나는 기획이며 이번이 세 번째 무대.

상영회는 국립오페라단의 서정 오페라 '브람스'로 채워질 예정이다. 완벽한 음악 구성과 로맨틱한 선율의 대가로 알려진 브람스와 사랑했던 연인 클라라의 필연적 연인을 인간의 미성과 오케스트라 선율로 표현한다.



국립오페라단의 '브람스' 공연 장면. <ACC 제공>

페라합창단 등이 연주한다.

ACC 관계자는 "브람스'는 오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세 작곡가의 주요 곡을 서사에 녹여내, 주인공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성의 묘가 돋

보인다"며 "브람스의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 사랑, 슈만과 클라라 사이의 필연과 숙명 등 주제가 영상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지난해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

급격한 혈당 상승을 뜻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우리말로 바꾼 '혈당 급상승'이 지난해 정부가 다듬은 우리말 중 가장 좋은 용어로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 용어 76개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혈당 급상승'이 가장 좋은 대체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혈당 급상승'은 기존 외국어 표현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로 응답자 92.5%(중복 선택)의 선택을 받았다.

이 외에 중앙은행이 기존 '금리'를 0.25% 포인트(p)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빅 컷'의 대체어 '금리 대폭 인하'(90.3%),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뜻하는 '업스킬링'을 다듬은 '역량 강화'(89.4%)도 잘 다듬은 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